

하현회 “LG헬로 1등 DNA로 미디어혁신 주인공 되자”

〈LG유플러스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7일 마곡사옥 지하 프론티어홀에서 진행된 LG유플러스 새해 첫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LG헬로비전과 첫 워크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안
고객경험 혁신의 원년 등 주문
각 사업부 개선부분 고민 당부

LG유플러스가 새해 첫 임원 워크숍에서 LG헬로비전과의 플랫폼 결합을 통해 종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마곡사옥 지하 프론티어홀에서 LG헬로비전 임원 포함 전사 담당, 임원 약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LG헬로비전 임원 소개로 시작, 외부 전문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강연과 환영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LG그룹 차원에서 변화의 방향으로 추진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해를 돋기 위한 외부 강연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하현회 부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LG 가족이 된 LG 헬로비전 임원들도 함께해 뜻 깊다”며 “올해는 통신과 미디어 플랫폼 혁신을 통한 선도가 중요한데 일등DNA를 가진 LG헬로비전 구성원들이 이러한 경쟁에서 주인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고 말했다.

하현회 부회장은 “2020년을 고객 경험 혁신 원년으로 삼고 각 사업영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들더라도 처음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라며 “추진 과제의 목표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 임직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해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철저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으로 변

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LG유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며 디지털 전환은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LG헬로비전 기술담당 김홍의 상무는 “LG유플러스 임원들과 처음 함께한 자리였지만 LG의 한 가족이라는 동질감을 느꼈고 특히 그룹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양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들을 수시로 벤치마킹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완성차 “車 무상점검 받고 내려가세요”

현대·기아차, 지엠, 르노, 쌍용차
전국 2274개 센터서 점검 서비스

국내 자동차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20~23일까지 무상점검 행사를 한다.

1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는 전국직영·협력서비스센터 2274곳에서 점검 서비스를 한다.

현대·기아차는 이 기간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378개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 및 799개 오토큐에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 귀성길 차량 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 점검해 장거리, 장시간 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엔진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 점검 서비스와 워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쉐보레더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설맞이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동안 쉐보



한국지엠 쉐보레가 설맞이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적인 안전 점검은 물론 엔진오일·필터, 오토미션 오일, 와이퍼, 에어컨 에어필터 등 8개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은 전국 전문협력서비스센터(ESC) 31곳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며, 서비스 기간 내 입고 고객을 대상으로 냉각장치를 비롯해 배터리, 공조장치, 각종 오일류, 와이퍼 블레이드, 타이어 공기압 등의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쌍용차는 직영서비스센터 2곳과 협력센터 19곳에서 각각 무상점검에 나선다. 이 기간에 히터·에어컨, 제동장치, 타이어 공기압·마모도,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와이퍼 등 소모성 부품을 무상 점검한다. /양성운 기자 ysw@

AI비서 ‘엘비’에 연말정산기능 추가
LG화학 등 4개사 7만여 명 서비스
350개 질문 답변, 응답 성공률 96%

#. 광화문 부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정아무개(37) 씨는 새해 첫머리가 되면 늘 머리가 지끈거린다. 10년 넘게 회사에 다녔지만 볼 때마다 생소하고 복잡한 연말정산에 도통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기밀 구석이었던 입사 동기들도 십수 년째 반복되는 질문에 슬슬 눈치를 준다.

이런 이들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속속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19일 LG CNS에 따르면 LG화학·LG유플러스 등 4개사가 AI 챗봇(채팅로봇) ‘엘비’를 사용해 직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말 정산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원래 임직원 검색·급여 확인 등 AI 비서 용도로 2017년 개발된 엘비는 2018년에 연말정산 상담 기능이 추가됐다.

가령, 대화창에 “2019년에 결혼했는



LG CNS의 인공지능(AI) 챗봇 ‘엘비’가 연말정산 상담을 하고 있는 화면

/연합뉴스

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라고 입력하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인 배우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관계일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총 350여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답변 또는 추천 답변이 나간 응답 성공률은 96%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질문 의도 추론 기능을 강화했고, 머신러닝(기계학습)도 적용했다.

LG CNS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문의해 오는 하루 평균 2만여건의 데이터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해 답변 성공률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각 회사 사정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다. 실제로 LG 계열사 외에 GS건설 등도 엘비를 사용 중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SKT, 설 연휴 트래픽 급증 대비 5500여 명 ‘비상근무’ 가동

상품권부터 올레 tv 할인까지 선물 ‘풍성’

KT, KT샵·기프티쇼 등서 이벤트

KT는 KT샵에서 설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지고 싶은 휴대폰이 무엇인지 응답하면 KT샵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제공하고, 연령별로 선물하기 좋은 가전 제품을 추천해준다. 해당 제품들은 인터넷 단품 혹은 인터넷+TV 동시 가입 시 무료로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쇼’ 서비스를 운영하는 KT 앱하우스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정관장 상품권을 27일까지 5% 할인 판매한다. KT 멤버십 이용자는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결제 시 KT 멤버십 포인트를 30%

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간 연다.

올레 tv와 Seezn(시즌)에서는 2020년 설특집관을 연다. 올레 tv에서는 설 특집관이 운영되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백두산’, ‘미드웨이’, ‘시동’ 등 30여편의 최신영화를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과 올레 tv 쿠폰을 증정하는 ‘세뱃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즌에서도 인기 영화 110여편을 1000원에 볼 수 있다.

KT는 설 명절 및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전국 주요 스키장 및 테마파크에서 ‘5Good(오굿) 위크’ 할인 이벤트도 연다. KT 이용자는 평창 휴니스파크에서 최대 76%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데이터 사용량 역대 최대치 전망
전국 750곳에 기지국 용량 증설

SK텔레콤은 설 연휴를 맞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관리 체계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설 연휴 기간동안 가상·증강현실(AR·VR) 게임, 미디어 시청, T맵 사용이 늘어 데이터 사용량이 597.4테라바이트(TB)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평일 대비 24% 많은 수치로, 15기가바이트(GB) 초고화질(UHD) 영화를 약 4만782편 내려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5G 데이터 사용량은 평일 대비 26.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SK텔레콤은 설 연휴 당일에는 평상시 대비 통화, 문자, 인터넷 검색 등이



SK텔레콤 직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이 몰리는 고속도로와 공항, 역사 등의 인근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터 27일까지 55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고속도로·국도, 공원묘지, 공항, 터미널 등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는 전국 750여 곳에 기지국 용량을 추가로 증설하고 품질 최적화를 마쳤다.

특히 차량 정체가 가장 많은 고속도로 인근 휴게소와 터미널을 대상으로 품질 최적화 작업과 5G 장비를 추가로 증설했다.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몰리는 인천공항에는 5G 장비 24식과 LTE 장비 14식을 추가로 구축 완료했다. SK텔레콤은 국제로밍은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웨이브, AI 누구스피커 등의 서비스들도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서버 사전 점검을 마쳤다. /김나인 기자